

보도 자료	<b>YOUNG KOREAN Awards, 2009년 한국청년상 수상자 발표</b>
	2009년-06월-17일(수)
	주최 : YUOUNG KOREAN Awards 위원회 문의 : KYC(한국청년연합) 02-2273-2205 최용선 간사 (010-2546-3690)

## 인문학으로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인디고서원의 〈허아람 대표 & 청년팀〉 한국청년상 수상

YOUNG KOREAN Awards 위원회(한완상 위원장)가 주최하고 KYC(한국청년연합)이 주관하는 2009년 한국청년상에는 인디고서원의 〈허아람 대표 & 청년팀〉이 수상하게 되었다.

[한국청년상] 수상자로 선정된 허아람(38) 대표는 2004년 인문학을 살리자는 취지로 부산에서 청소년 인문학 전용 서점 인디고 서원을 열어, 부산지역 인문학 부흥의 거점이 되었다. 인디고서원에서 성장한 청년팀은 청년들이 가꾸는 '더 나은 세상'이란 질문으로 세계적인 석학을 만나 토론을 진행해 왔고, 2008년 8월에는 세계의 창조적 실천가 45명을 부산으로 초청해 청년들의 꿈을 나누고 소통하는 '인디고 유스북페어'를 개최하여 인문학 부흥운동에 활력을 집어넣었다.

심사위원들은 〈허아람 대표 & 청년팀〉의 풍부한 인문학적 상상력과 진지한 실천을 높이 평가했으며 세상을 바꾸는 데 큰 역할을 기대한다고 한국청년상 선정의 이유를 밝혔다.

[아름다운도전상]에는 대학 내의 비정규직 인권실태 조사를 시작으로 청소 용역 노동자들의 체불 임금을 받기 위해 캠페인을 이끌어간, 비정규직 문제를 고민하는 연세대학교 학생모임 〈살맛〉이 수상하게 되었다.

〈살맛〉은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학생의 적극적인 관계 맺기를 통해서 인간적인 유대를 만들어냈고, 학내외 단체들과 네트워크를 조직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풀어갔다.

청년세대의 성장에 기여하고 지속적으로 주목해야하는 이들에게 돌아가는 [특별상]에는 20대 청년들의 건강한 사회데뷔를 목표로 청년실업 문제를 고민하는 〈희망청〉, Social Consulting Group의 대표로 활동하며 사회적기업 컨설팅을 도맡아온 경영 컨설턴트 〈고영〉, 민주주의 현장에서 새로운 사회 참여의 모델이 된 온라인 카페 〈소울드레서〉, 모두가 치료 받을 수 있는 무료병원을 꿈꾸는 사회적 기업 〈FREEMED〉, 동물들에게 지급해야할 모델료로 환경보호를 실천하는 사회적 기업 〈JADE〉가 수상하게 되었다.

또한 한국청년상 추천과 동시에 진행된 2030변화상상 공모전 [우수작]으로 청년들의 생활을 짧은 시간에 꼼꼼하게 조명한 동영상 <살아남는 방법>이 선정되었다.

[가작]으로는 가르침의 길에 오른 세 청년들의 모습을 담은 다큐멘터리 <2030, 좌절을 넘어 새로운 가르침의 길로>, 2030세대의 실업자가 만연한 세태를 풍자한 뮤직비디오 <내 나이 서른 하고 네 살>이 가작으로 선정되었다.

YOUNG KOREAN Awards 위원회(위원장 한완상, 전 교육인적자원부 부총리)가 주최하는 한국청년상에는 총 47명의 인물(단체)이 추천되었으며, 2030 변화상상 공모전에는 26개의 작품이 응모되었다. 선정된 각각의 수상자에게는 소정의 상금(한국청년상 상금300만원, 아름다운도전상 상금200만원)과 상패가 수여된다.

한국청년상 및 2030변화상상 공모전은 개념 없는 20대 살기 바쁜 30대라는 오해와 편견을 뛰어넘어, 변화를 상상하고 만들어가는 인물과 사례를 발굴해 응원하고 격려하기 위해 올 해 처음 개최되었다.

시상식은 오는 6월 25일(목) 오후 7시 홍대앞(서울 마포구) 상상마당 라이브 홀에서 개최되며, 많은 청년들을 초대할 가운데 노브레인(밴드) 등의 축하공연도 있을 예정이다.

#### 2009 YOUNG KOREAN Awards 위원회

위원장	한완상(전 교육인적자원부 부총리)
부위원장	김형주(17대 국회의원)
	이정옥(대구가톨릭대 교수)
	이정희(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 부대표)

#### [별첨자료]

- ① 2009 YOUNG KOREAN Awards 수상자들의 활동 내역
- ② 심사 총평 \_ 한완상 (YOUNG KOREAN Awards 위원장)
- ③ 한국청년상과 아름다운도전상 심사평 \_ 고재열 (독설닷컴 운영자, 시사IN 기자)
- ④ 2030 변화상상 공모전 심사평 \_ 문성준 (해피스토리 기획실장)

## 2009 YOUNG KOREAN Awards 한국청년상 수상

### <인디고서원 허아람 대표와 청년팀인크>

- 2004년 8월 부산 남천동에서 허아람 대표, 인문학을 살리자는 취지로 청소년 인문학 전용서점 표방하며 인디고 서원을 개원 / 이후 한 달에 한 번씩 '주제와 변주'라는 독서 토론회를 개최.
- 2006년 9월 인디고 서원에서 성장한 대학생과 청소년 기자들이 청소년 인문교양지 '인디고잉 (INDIGO+ing)을 창간 / 노벨평화상 수상자 무하마드 유누스등 세계적인 석학들이 학생기자들의 진성성에 공감해 인디고잉에 원고를 보냄.
- 2007년 5월 '정의로운 세상을 꿈꾸는 청소년, 세계와 소통하다'(=정세청세) 청소년 인문학 토론회 개최 / 부산에서 시작한 정세청세는 이후 대구, 서울, 순천등 6곳으로 개최 범위를 확대.
- 2008년 2월 네팔 청소년잡지 '투데이 뉴스 아시아' 팀과 교류를 계기로 네팔 타나훈 지역에 인디고도서관을 짓기로 하고 인디고 서원의 수입금을 건립기금으로 출연. 네팔 프라사드 코이랄 총리로부터 '에베레스트 어워드' 수상.
- 2007년 2월 허아람 대표와 인디고 청년팀 세계 곳곳을 돌며 실천적 지식인을 만나 더 나은 세상에 대한 인터뷰를 시작함.
- 2008년 7월 인터뷰 내용을 정리한 서적 '꿈을 살다' 출판. 박용준과 인디고유스북페어 프로젝트 팀 지음.
- 2008년 8월 부산에서 브라이언 파머 교수(스웨덴 옘살라대학)등 그동안 인터뷰 했던 세계 곳곳의 창조적 실천가 45명을 초청한 유스북페어를 개최

## 2009 YOUNG KOREAN Awards 아름다운 도전상

### <비정규문제를 고민하는 학생모임 연세대 '살맛'>

- 2006년 9월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던 연세대의 몇몇 학생들은 한국비정규노동센터와 함께 부터 학내 미화노동자 인권실태조사를 시작.
- 2007년 3월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학내 미화 노동자의 열악한 상황을 공감한 학생들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실천으로 비정규문제를 고민하는 학생모임 [살맛]을 결성. 이후 매주 미화 노동자 휴게실을 꾸준히 방문하기 시작함.
- 2007년 한 해 동안 연대 장터 만들기, 유인물배포, 부당한 인사이동에 대한 항의 집회 등을 진행하면서 미화 노동자들에게 노조의 필요성을 설득함.

- 2008년 1월 연세대내 비정규직 노조를 결성하고 창립대회를 개최. 평균나이 50~60대 청소 미화 경비노동자 280명가량이 조합원으로 가입.
- 2008년 2월 학내 청소용역 하청업체의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3억5천만 원의 미화노동자의 임금이 떼일 위기에 처함.
- 2008년 3월 용역업체의 체불임금 사실을 알고도 원청사인 연세대가 그 돈을 학교 발전기금 명목으로 챙겼다고 주장하며, 학생들과 비정규 노동자들의 시위가 이어짐. 학교는 며칠 후 문제의 업체로 부터 받은 돈을 반납 하겠다고 밝힘 / 2008년 11월. 체불임금을 돌려받음
- 2008년 9월 학교는 무인경비시스템의 도입을 이유로 계약기간이 남은 공대 쪽 12명의 경비 노동자들의 계약 해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함. 노조와 학생들이 학교와 맞서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를 무효화함.

## 2009 YOUNG KOREAN Awards 특별상

### <고 영(딜로이트 경영컨설턴트)>

전문가 재능기부 단체인 'Social Consulting Group'의 (컨설턴트, 변호사, 회계사, 마케터, 애널리스트, PR전문가, 의사, 약사 등 80여 명) 프로보노 대표로 활동.

아름다운 가게를 시작으로 참신나는 옷, 동북아 평화연대, 희망제작소, 이로운물 등 다수의 사회적 기업들의 성공을 이끌어 내고 있음.

2008년 7월 30년 뒤의 세상을 그린 세계문화주도 국과 정치와 사랑을 연결시킨 <아고라에 선 리더십>을 출판.

2009년 4월 새로운 자본주의에 도전하라 출간 <영악한 자본주의 뒤집기> 출판.

## 2009 YOUNG KOREAN Awards 특별상

### <20대 사회데뷔를 위한 청년시민단체 '희망청'>

'20대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체인지메이커' 를 운영

멘토서비스를 통해 창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

20대가 복지인구가 아닌 생산인구가 되기 위한 데뷔의 플랫폼을 제안.

2006년 실업극복국민재단이 '청년실업 문제의 해법을 찾아갈 희망공간'이라는 컨셉트로 만들 어짐

2008년 사회적기업 '노리단'이 위탁운영을 맡음.

2008년 3월 한·일 두 나라의 청년실업 해결을 모색하는 토론회 개최

- 2008년 4월 88만원 세대가 18대 총선에 제안하는 88무브먼트 <20대가 열쇠다> 행사 개최
- 2009년 2월 맥놀이 등과 함께 밤섬해적단으로 20대 문화생산자 캠프 개최
- 2009년 5월 청년백수들의 '인디 메이데이' 개최

## 2009 YOUNG KOREAN Awards 특별상

### <사회적 기업 JADE>

스티커, 문구류 등의 디자인 제품을 제작. 22마리의 동물들에게 지급해야할 모델료로 환경보호를 실천하는 사회적 기업

스위스 글랑의 람사르 사무국과 희망제작소에 모델료의 일부를 기부

- 2008년 8월 부산 국제 어린이 영화제 기념품 제작 및 어린이 환경 교육
  - 2008년 11월 KDI 착한 기업 벤처대회 우수상 수상
  - 2008년 12월 JP Morgan이 후원하는 사회적 기업 아이디어 대회 2등상 수상
  - 2009년 1월 국립 중앙 박물관-환경부 습지의 날 기념행사 후원 (2009.1)
  - 2009년 1월 희망제작소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초청 발표
  - 2009년 2월 낙동강 하구 에코센터-UNDP/GEF 환경부 습지사업단 강연회 기념품 후원
  - 2009년 3월 (사)한국동물복지협회 디자인 후원. (2009.3)
- 이면지 사용을 위한 'TURN OVER' 프로젝트가 진행 중.

## 2009 YOUNG KOREAN Awards 특별상

### <사회적 기업 FREEMED>

의료 사각 지대의 의료 환경 개선을 목표로 무료병원을 꿈꾸는 사회적 기업

- 2008년 12월 희망제작소 개최 사회적기업 아이디어 대회 대상 수상
  - 2009년 2월 FREEMED bus를 이용 의료소의 계층을 찾아가는 진료서비스를 시작, 후 심화 진료를 병행.  
/ 을지로 노숙자 거주지역, 경기도 마석 외국인 근로자 거주지역 방문에서 종로 쪽방촌, 구룡마을 판자촌등으로 방문지역을 확대할 예정
  - 2009년 4월 1000원 수술로 FREEMED가 후원할 첫 번째 환자를 선정하여 초음파 추적 검사를, 7월 중순경 추가 수술을 시행할 예정
- 현재 안정적인 자원 마련을 위해 디자인 제품을 판매중.

## 2009 YOUNG KOREAN Awards 특별상

### <온라인 카페 소울드레서>

패션에 관심이 있는 여성을 위한 온라인 카페로 주로 2030세대가 주축을 이룸  
카페개설이래로 의견광고와 퍼포먼스 행사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치·사회 문제에 참여함으로써 21세기  
신여성 '배운여자'로 화제가 되었음

2008년 5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부터 시작하여 촛불집회 모임, 민주주의를 향한 퍼포먼스 행  
사, 화물연대 파업을 지지하며 위문품과 응원글을 전달  
'2008 미디어의 모든 것' 올해의 스타 꼽힘

2009년 ~ 최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관련하여 모금운동을 진행 봉하마을에 도시락, 국화  
등을 지원

2009년 6월 미디어법과 관련한 시국관련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

문의 : KYC(한국청년연합) 02-2273-2205

최용선 간사

한완상 (YOUNG KOREAN Awards 위원장)

관심과 기대 속에서 진행된 한국청년상 추천 과정 이후 심사위원회는 고민을 거듭하였습니다. 대학, 사회적기업, 시민사회단체에서 혹은 혼자서라도 좀 더 나은 세상을 위해 꿈을 키우고 도전하는 청년들을 살펴보면, 먼저 "대단한 청년들이네" 하고 감탄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마음 한편에는 "이런 보물이 숨겨져 있던 걸 몰랐구나" 하는 심정으로 모두에게 격려의 상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사회는 학벌주의와 입시제도라는 청소년들을 옴아매는 그물이 쳐져 있고, 청년들은 자유로운 상상과 창조적인 비상을 준비하는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먹고살기 위해 부담스러운 노력을 해야만 하는 현실입니다.

이런 험악함 속에서도 청년들은 지구반대편까지 찾아가서 정의로운 세상을 위해 질문을 하고, 지구의 아픔을 걱정하고 치유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또한 학교에서 청소하는 아주머니들의 권리를 찾아주기 위한 학생들의 치열함이 있었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과 희망을 나누기 위한 헌신도 있었습니다.

세계가 직면한 경제위기와 지구온난화의 문제는 '또 다른 세계'를 향한 꿈을 실천하기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청년들이 기성세대가 닦아 놓은 레일 위에서만 움직이도록 프로그램 되어서는 우리 사는 세상은 꿈을 꿀 수 없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 리얼리스트가 되자, 그러나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자"고 외쳤던 혁명가의 말처럼, 우리 사회는 불가능한 상상을 포기 하지 않은 청년들이 필요합니다.

2009년 YOUNG KOREAN Awards 심사과정에서는 우리는 식지 않은 청년들의 열정에서 다시 우리 사회의 꿈을 발견하였고, 시상 사례를 통해 많은 분들에게 청년들의 열정을 나누어 드릴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청년을 살리는 일은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사회의 가장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저 또한 기성세대 한사람으로 청년들의 꿈을 지켜주고 응원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되어 다행한 마음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처음으로 시상하게 된 한국청년상이 있을 수 있도록 정성을 모아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한국청년상, 인디고 서원 허아람 대표 & 청년팀

인디고 서원 허아람 대표와 청년팀의 성취는 눈부시다. 인디고 서원은 부산지역 인문학 부흥의 거점이 되었고 청년팀은 ‘유스북페스티벌’ 등을 조직하며 인문학 부흥운동에 활력을 집어넣었다. 인디고 서원이라는 하드웨어와 청년팀이라는 소프트웨어가 이뤄낸 성취는 ‘한국청년상’ 1회 수상자로 손색이 없을 만큼 값진 것이었다.

심사위원들이 특히 주목한 부분은 행사를 기획하고 실행해나가는 과정에서 보이는 진지함과 열정 그리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에서의 참신한 사고였다. 그들은 ‘집단지성’으로 문제를 해결했다. 그래서 지방이라는 단점과 열악한 재정환경에도 불구하고 인디고 서원과 청년팀은 중앙의 어떤 단체도 이뤄내지 못했던 성과를 이뤄냈다.

아름다운도전상, 연세대 살맛

아름다운도전상 수상자로 연세대 <살맛>을 선정한 것은 ‘내 주변의 비정규직 문제를 연대로 해결한다’는 그들의 ‘아름다운 도전’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이다. 요즘 청년들은 사회문제에 무관심하고 심지어 청년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발언하지 않는데, <살맛>의 이런 활동은 이와 대비되는 모습이었다.

<살맛>은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담론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했다는 점이 높이 평가되었다. 이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과의 적극적인 관계 맺기를 통해서 인간적인 유대를 만들어냈고 학내외 단체들과 네트워크를 조직해 이 문제를 체계적으로 풀어갔다. 결국 연세대 비정규직 청소용역 직원들이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 연세대분회’를 조직하고 3년간 밀린 임금 3억5천만원(101명 분)을 받아낼 수 있게 만들었다.

문성준 (해피스토리 기획실장)

<2030 변화상상 공모전>에 출품한 26개 작품 중 1차 심사를 거쳐 8개 작품이 본심에 올랐다. 1차 심사에서는 이번 공모전의 주제인 ‘2030세대의 사회경제적 현실과 삶’, ‘2030세대가 만들고 싶은 세상’, ‘변화를 만드는 2030세대 인물·단체·사례 소개’와 연관성이 떨어지는 작품들을 제외했다.

심사위원회는 본심에 오른 8개의 작품들(동영상 5편, 블로그 기사 2편, PPT 1편)을 주제 적합성, 작품 완성도와 사회적 영향을 기준으로 세심히 심사하였다. 아쉽게도 이 모두를 충족한 작품이 없어 최우수작 후보에는 어느 작품도 오르지 못하였다.

그리고 공모전 주제에 부합하지 못하거나 표현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영상들,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설득하지 못한 블로그 기사들, 그리고 너무나 많은 정보를 담고 있어 무엇을 전달하고자 하는지 파악하기 힘든 PPT 등은 수상 후보에서 멀어졌다.

심사 기준에 비추어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2030세대와 함께 공유하기에 의미 있는 동영상 3편을 우수작 1편, 가작 2편으로 선정하였다.

우수작으로 선정된 이지혜 씨의 동영상 <살아남는 방법>은 응축된 시간에 단순한 이미지로 ‘천천히’, 그리고 ‘함께’ 하자는 메시지를 2030세대에게 던지고 있다. 어떻게, 또는 왜 천천히 함께 하자는 주장을 담지 않고 있어 영상의 끝에서 맥이 풀리지만 짧은 시간에 촘촘한 짜임새를 보여 상대적으로 호평을 받았다. <살아남는 방법>은 이미 광고에 등장한 기법을 차용하고는 있지만 메시지와 어긋남 없이 빌려온 기법을 잘 소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점은 제작자의 창조적 능력에 대한 의구심을 낳아 최우수작 후보에 오르지 못한 또 하나의 이유가 되기도 하였다.

가작으로 선정된 고지현 씨의 5분짜리 짧은 다큐멘터리인 <2030, 좌절을 넘어 새로운 가르침의 길로>는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 애쓰는 청년들이 걷지 않는 ‘가르침의 길’에 오른 세 청년들의 모습을 담고 있다. 세 사람을 쫓아다니며 취재하고 하나의 주제로 묶으려는 노력, 결코 쉽지 않은 도전이었을 제작 과정이 호평을 받았다. 그러나 다문화 가정의 삶에 도움을 주고자 나선 청년과 사교육 시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청년들은 사회적으로 대단히 다른 역할을 하고 있는 점을 통찰하지 못하였다. 교육에 대한 사회적·철학적 성찰이 부족한 점과 함께 촬영, 편집 등 영상의 형식을 완성하지 못한 점도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

또 하나의 가작으로 선정된 잡리스의 <내 나이하고 서른네 살>은 세태를 풍자한 뮤직비디오이다. 풍자 뮤직비디오답게 재미를 선사하고 있고 2030세대의 실업자가 만연한 현실을 고발하고 있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뮤직비디오의 대부분의 화면을 두 출연자가 자리에 앉아 노래하는 장면으로 채워져 아쉬움을 남겼다. ‘잡리스’에게 화려한 배경화면을 바랄 수는 없지만 ‘잡리스’다운 소품과 배경, 자료 화면을 풍성하게 담아 더욱 큰 풍자의 재미를 선사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접어 가작에 그칠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는 잡리스의 또 다른 작품들에서 보여주는 완성도를 기대한다.

결과적으로 형식에서나 내용에 있어서나 다양한 작품들이 수상하게 되었다. 그래서 세 작품들이 수상작으로 묶여 새로운 자극으로 2030세대에게 다가갈 기대한다.

<2030 변화상상 공모전>은 첫 해에서부터 최우수작이 선정되지 못하였다. 또한 25편의 수상작을 기대했지만 현저히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남겼다. 넘치는 기업의 공모전들과 달리 우리 사회를 성찰하는 공모전이 2030세대에게는 아직 익숙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2030 변화상상 공모전>이 해를 거듭하면서 2030세대에게 도전의 기회이자 성찰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